

##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 및 경향분석

이정순 · 이수임 · 배주형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전공

### Study Theme and Tendency Analysis of Clothing Construction

Jung-Soon Lee, Soo-Im Rha and Ju-Hyung Bae  
Dept. of Fashion Design, Sang Myung University

#### A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real situation of clothing construction to present the desirable direction to establish more scientific and reasonable themes of the study by analysis of the tendency of the clothing construction study. For this purpose, 402 papers on the theme of clothing construction study were excerpted from the first issues to the issues of December in 1999 of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Fiber Society, and Journal of the Human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I analyzed and classified the theme into eight issues of design related clothing construction, study of body types, study of patterns, size of apparel, fitting of clothing, protective clothing and functional clothing, sewing, and the other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he distribution tendency of the clothing construction study by the journal of each society showed that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is 22.9%,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7.3%,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2%, 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
2. The distribution tendency of the studying issues showed that study of body types is 29.4%, study of patterns 21.9%, fitting of clothing 11.7%, sewing 10.2%, size of apparel 8.5%, and others 7%, protective clothing and functional clothing 6.7%, and design related clothing construction 4.7%. Considering the above result, we can understand that study of body types and patterns are being studied most actively.
3. Regarding the study tendency by academic issues showed that study of construction elements and design application is chiefly centered of the study of design related clothing construction (35.5%), analysis of body types is centered of the study of body types (46.6%), CAD is centered of the study of patterns (31.1%), and size spec for the ready made patterns is centered of the study of size of apparel (32.4%). As for fitting of clothing, the study was performed in two ways on the changes of the surfaces of human bodies in motion and the functional features of experimental dressing. Regarding the study of sewing, study of fusible interlining was mainly performed (36.6%) and regarding the study of protective clothing and functional clothing, study of brassieres and underwear was chiefly performed.

*Key words* : design related clothing construction(디자인관련 의복구성), study of patterns(의복 및 패턴 연구), size of apparel(의류치수), fitting of clothing(의복의 맞춤새), protective clothing and functional clothing(복수복 및 기능복).

## I. 서론

인간이 천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수천년 전의 일로서 직선적인 구성선에서 곡선적인 구성선의 입체적인 옷을 만들게 되면서 다양한 재단법과 봉제기기의 발전을 가져왔다. “옷을 제작한다”는 것이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학문의 대상이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이며 학교교육에서 “제봉”이라는 과목이 학문적 체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피복구성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sup>1)</sup>. 의복구성학은 “옷을 어떻게 제작하는가”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옷을 만드는 과정, 그 자체가 학문의 대상이 되어 이론적 전개와 체계화를 통하여 항상 변화하는 사회상황과 인간의 감각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식미를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종래의 의복구성학은 옷을 만드는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기성복이 일반화되고 작업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있는 이래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의복구성학의 교육 및 연구의 대상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국내의 의복구성학의 연구는 1963년 대한가정학회지에 의복구성학적인 면<sup>3)</sup>을 다룬 첫 논문이 발표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은 있었으나 반드시 체계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의복구성학을 전공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느껴본 문제로서 구성학 연구의 현실적인 어려움 즉, 옷은 인체, 소재 등을 포함한 너무나 다양한 관련변인을 가진 연구분야라는 점과 이론과 실습, 실험을 병행하기에는 연구 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학문의 발전적인 면에서 의류학의 타영역에 미하여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기도 한다.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의복에 관계된 현상을 예측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결과를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옷을 제작하는 문제를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의

복구성학이야말로 과학적인 연구이어야 하며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연구결과는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이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의복구성학 관련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의 의복구성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첫째,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주제별 분류 둘째, 연구주제의 학회지별, 연대별 분포 경향 셋째, 연구주제별 하위주제의 연구 경향 분석을 통하여 의복구성학 연구의 현상을 파악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복구성학의 연구과제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전문학술지인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복식지, 복식문화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대한인간공학학회지에 발표되었던 의복구성학 분야의 논문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각 학회지별로 보면, 한국의류학회지의 1977년 창간호부터 1999년의 Vol. 23, No. 8까지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182편, 대한가정학회지의 1959년 창간호부터 1999년의 Vol. 37, No. 11까지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98편, 복식의 1977년 창간호부터 1999년의 Vol. 49까지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39편, 복식문화연구지의 1993년 창간호부터 1999년의 Vol. 7, No. 6까지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34편, 한국섬유공학회지의 1964년 창간호부터 1999년의 Vol. 37, No. 12까지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24편, 대한인간공학학회지 1982년 창간호부터 1999년의 Vol. 18, No. 3까지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25편으로 분석자료로 사용된 논문은 총 402편이었다.

### 2. 분석항목

- 1) 박혜숙, 최경미, 조영아, 공혜정, *피복구성학 -이론편-*, 교학연구사, 1999, pp.9-12.
- 2)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의류학*, *대학가정학회지*편, 교문사, 1990.
- 3) 김정선, 우주복에 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 1963.

분석항목은 학회지별, 발표년도별, 연구주제별로 정하였다. 학회지별은 고유의 학회지명을 사용하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한국섬유공학학회지, 대한인간공학학회지로 분류하였으며, 발표년도별 분류는 1959년부터 1999년까지를 5년 간격의 단위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별 분류는 대한가정학회지에서 1977년과 1984년, 199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가정학 연구 최신정보 1·2·3<sup>2),4),5)</sup>의 의복구성학분야와 김효숙<sup>6)</sup>, 정찬진 등<sup>7)</sup>의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자들이 예비조사와 토의를 거쳐 조정하였다. 최종으로 결정된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주제는 디자인관련 의복구성, 체형,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의류치수, 의복의 맞춤새, 특수복 및 기능복, 봉제, 기타로 분류하였다.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논문 주제와 하위주제는 <표 1>과 같다.

연구주제를 각 영역별·하위주제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제목과 서론에 의하였고 주제가 복합적인 경우는 논문전체를 참고하여 지배적인 분야에 포함시켰다.

### 3. 자료분석의 신뢰도

연구주제별 분석의 객관성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자료로 채택된 논문 중 총 89편의 논문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연구자 2인이 동일한 논문 89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를 명명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신뢰도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를 구하였다.

$$\text{신뢰도 계수} = \frac{2M}{N_1 + N_2} = \frac{2 \times 81}{89 + 89} = 0.91$$

$N_1, N_2$  : 연구주제분류의 신뢰도 검증에 사용된 논문편수

$M$  : 연구주제가 일치하는 논문의 편수

<표 1>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주제의 분류체계

연구 주제	하 위 주 제
디자인관련 의복구성	구성요소와 디자인의 관계, 체형과 디자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험, 구체적인 스타일, 입체재단에 의한 디자인 실습·실물제작, 디자인의 미적, 시각적 효과와 의복구성상의 여러 가지 요소와의 관계 평가
체형	체위치수 비교 및 상관관계, 체형분류, 연령별 체형연구, 인체측측, 체형분석, 기타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원형설계연구, 입체재단법연구, 의복의 여유량, 한복패턴, 응용패턴,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제도,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 동작과 패턴과의 관계, 소재와 패턴과의 관계
의류치수	치수실태조사, 치수설정을 위한 체형연구, 등급법을 위한 치수체계
의복의 맞춤새	동작시에 체표면 변화, 착의실험에 의한 기능성 연구
특수복 및 기능복	특수체형을 위한 의복, 특수기능복, 특수기능복을 위한 의류품목
봉제	접착심지, 심퍼커링, 소재의 물리적 성질과 봉제와의 관계, 봉제의 능률화와 봉제조건과의 관계, 부자재의 가용성
기 타	의생활실태·착용태도·선호도, CAD관련도구, 기타(용어, 패턴작업공정)

4)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의생활, 대한가정학회지, 신광출판사, 1977.

5)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Ⅱ, 의류학, 대학가정학회지, 신광출판사,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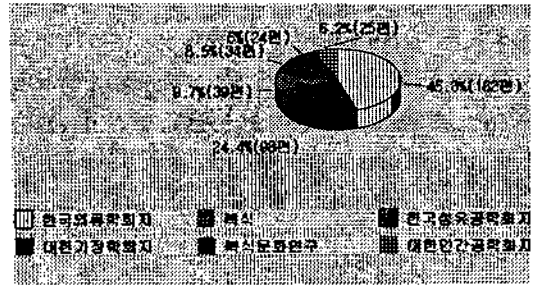
6) 김효숙, 의복구성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과 제조명,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14, 1991 pp.103-114,

7) 정찬진, 박선정, 황선진, 한국의류학연구의 현황과 제조명 :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제15권 제1호, 1990 pp.28-37.

그 결과 신뢰도 계수는 0.91로 높게 나타났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분석자료는 학회지별, 발표년도별, 연구주제별로 나누었으며 연구주제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5년 간격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그림 1> 학회지별 분포

### Ⅲ. 결과 및 분석

#### 1. 학회지별·발표년도별 분포

본 연구를 위해 발췌된 의복구성학분야 논문 402편을 근거로 하여 학회지별 분포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학회지별로는 한국의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전체 45.3%를 차지하는 182편으로 지배적이며, 대한가정학회지가 24.4%(98편), 복식이 9.7%(39편), 복식문화연구가 8.5%(34편), 한국섬유공학학회지가 6%(24편), 대한인간공학학회지가 6.2%(25편)이다.

그리고 학회지별·년도별로 전체 의류학 연구 논문 중 의복구성학 분야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의 전체 의류학 연구논문 중에서의 의복구성학 연구 논문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한국섬유공학학회지와 대한인간공학학회지는 의류학 관련 전문학회지가 아니고 인접하는 학문의 학회지이므로 연도별 의복구성학 논문의 발표경향만 참고하기 위하여 논문편수만 제시하였다. 학회지별 분포는 대한가정학회지 22.9%로 의복구성학 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한국의류학회지로 17.3%, 복식문화연구 12.2%, 복식은 6.3%의 순서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도별 변화는 한국의류학회지는 장간호 이후 큰 변화없이 연도별로 비슷한 분포

<표 2> 전체의류학 연구중 의복구성학 연구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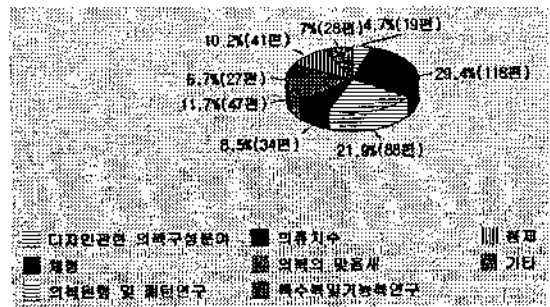
학회지명 년도별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한국섬유 공학학회지	대한인간 공학학회지
	T	C	%	T	C	%	T	C	%	T	C	%	C	C
1959~1965	14	1	7.1											
1966~1970	12	2	16.7											
1971~1975	32	11	34.4											
1976~1980	53	10	18.9	48	7	14.6	24	1	4.2					
1981~1985	78	22	28.2	93	18	19.3	55	1	1.8					1
1986~1990	65	11	16.9	157	25	15.9	59	5	8.5				1	9
1991~1995	75	21	28	292	54	18.5	192	10	5.2	65	8	12.3	9	8
1996~1999	102	21	20.6	458	78	17.0	293	22	7.5	213	26	12.2	14	7
합 계	431	99	22.9	1,048	182	17.3	623	39	6.3	278	34	12.2	24	25

T: 전체의류학논문편수 C: 의복구성학관련논문편수

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한가정학회지는 1971~1975년 사이에 34.4%로 가장 활발하게 발표되었고 1981~1985년 사이와 1991~1995년 사이에 28.0%의 본포를 보이고 1996~1999년 사이에는 20.6%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복식은 선행연구 결과<sup>8)</sup>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복구성학 분야의 논문이 타 학회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섬유공학회지는 1986년에 의복구성학의 봉제 관련 논문<sup>9)</sup>이 발표된 이래 조금씩 발표 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인간공학회지 역시 1983년에 체형 관련논문<sup>10)</sup>이 발표되고 연도별로 꾸준히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의복구성학이 보다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관련학문과의 공동 연구 또한 필요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2. 연구주제별 분포

본 연구를 위하여 발췌된 총 논문 402편을 근거로 하여 의복구성학 연구의 연구주제별 분포경향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구주제별 게재논



<그림 2> 연구주제별 분포

문 편수를 5년 단위로 분류하여 <표 3>에 나타내었고 학회지별 발표경향을 <표 4>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체형연구 29.4%,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21.9%로 가장 활발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의복의 맞춤새가 11.7%, 봉제 10.2%, 의류치수연구 8.5%, 기타 7%, 특수복 및 기능복 6.7%, 디자인관련 의복구성학 연구가 4.7%로 나타났다. 의복구성학적인 연구 논문이 처음 발표된 것은 김정선의 우주복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3> 의복구성학 연구주제의 발표연도별 변화

연구주제별	1959~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1999	
	N	%	N	%	N	%	N	%	N	%	N	%	N	%	N	%
디자인관련 의복구성	0	0	0	0	0	0	0	0	3	7.1	3	5.9	3	2.7	10	6.0
체형	0	0	0	0	5	50.0	2	11.1	8	19.0	10	19.6	34	30.9	59	35.1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0	0	2	100	0	0	1	5.6	10	23.8	14	27.5	25	22.7	36	21.4
의류치수	0	0	0	0	2	20.0	5	27.8	5	11.9	1	2.0	10	9.1	11	6.5
의복의 맞춤새	0	0	0	0	0	0	4	22.2	10	23.8	12	23.5	14	12.7	7	4.2
특수복 및 기능복	1	100	0	0	0	0	0	0	1	2.4	5	9.8	10	9.1	10	6.0
봉제	0	0	0	0	3	30.0	6	33.3	5	11.9	3	5.9	4	3.6	20	11.9
기타	0	0	0	0	0	0	0	0	0	0	3	5.9	10	9.1	15	8.9
합 계	1	100	2	100	10	100	18	100	42	100	51	100	110	100	168	100

8)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한국외류학의 연구경향분석 : 1991~1999, 복식문화연구, 제8권 제6호, 2000.  
 9) 서정권, 권영연, 봉제시 바늘의 온도가 가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 한국섬유공학회지, 제23권 제5호, 1986, pp.11-19.  
 10) 이상도, 정중희, 김길배, 인체계측치의 주성분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제2권 제1호, 1983, pp.3-12.

&lt;표 4&gt; 의복구성학 연구주제의 학회지별 변화

연구주제별	학회지명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한국섬유공학학회지		대한인간공학학회지		합계	
	N	%	N	%	N	%	N	%	N	%	N	%	N	%	N	%
디자인관련 의복구성	4	21.1	6	31.6	6	31.6	1	5.3	1	5.3	1	5.3	19	100		
체형	25	21.2	62	52.5	11	9.3	11	9.3	0	0	9	7.6	11	100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25	28.4	36	40.9	12	13.6	11	12.5	3	3.4	1	1.1	88	100		
의류치수	11	32.4	13	38.2	3	8.8	2	5.9	2	5.9	3	12.0	34	100		
의복의 맞춤새	15	31.9	29	61.7	0	0	1	2.1	0	0	2	8.0	47	100		
특수복 및 기능복	5	18.5	11	40.7	3	11.1	2	7.4	0	0	6	24.0	27	100		
봉제	9	22.0	21	51.2	1	2.4	1	2.4	9	22.0	0	0	41	100		
기타	4	14.3	4	14.3	3	10.7	5	17.9	9	32.1	3	10.7	28	100		

1966~1970년에는 2편의 원형연구 논문이 발표되었고 1971~1975년에는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체형연구와 의류치수관련의 연구 논문, 봉제 논문의 세부야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그 이후에 1976~1980부터는 발표 논문의 분야가 다양화되어 그 중에서 특히 봉제, 의류치수 연구가 여러 편 발표되었으며 의복의 맞춤새에 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기성복 대량생산 체제로 접어들면서 의복구성학의 연구논문에 연구논문에서 의류치수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1976~1980년 사이에는 타주제에 비하여 발표논문의 편수가 많은 편이었다. 1981~1985년에는 의복구성학 논문 발표편수가 전년도에 18편에서 42편으로 대단히 증가하였으며 연구경향의 차이로는 의류치수 연구가 감소한 대신에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가 5.6%에서 23.8%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의복의 맞춤새 연구는 여전히 활발한 연구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체형 연구는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의류치수 연구는 27.8%에서 11.9%로 그리고 봉제 연구도 33.3%에서 11.9%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기성복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의류치수 연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형연구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의 의류치수는 많은 변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원형연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리라 생각된다. 1986~1990년 사이에는 의복원형 및 패턴

연구 27.5%, 의복의 맞춤새 23.5%, 체형 19.6%로 나타났다. 1991~1995년 사이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관련논문이 발표되었다. 1991년 이후에는 타 하위주제에 비하여 체형과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가 대단히 활발한 연구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보다는 체형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이상의 경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의복구성학 분야의 년도별 변화에서 1977년에 의류학회지가 창간되면서 더욱 활발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기성복 산업에 힘입어 봉제, 의류치수, 의복의 맞춤새 연구가 다른 하위주제에 비하여 활발한 경향이었다. 이 3주제의 연구경향이 봉제 연구는 1980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1996~1999년에는 한국섬유공학학회지에서 관련논문이 발표되면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리고 의복의 맞춤새 연구는 1990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고 의류치수 연구는 1980년 이후에는 감소하였으며 대신에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와 체형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1년 이후에는 체형연구와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가 의복구성학 연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하위주제별로 학회지에 발표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디자인과 관련한 의복구성학 관련 논문은 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복식에 주로 발표

되었으며 체형연구와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의류치수, 특수복 및 기능복 연구는 70~80%이상 한국의류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에 주로 발표되었으며 그리고 체형, 의류치수, 특수복 및 기능복 논문은 대한인간공학학회지에도 다수 발표되었다. 봉제 논문은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섬유공학학회지에 주로 발표되었다.

### 3. 하위주제별 분포

의복구성학의 하위주제별 구체적인 연구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디자인과 관련된 의복구성학은 디자인의 관계, 체형과 디자인의 관계 등에 대하여 이론 및 실험과 기초론을 응용한 구체적인 스타일, 또는 입체재단에 의한 디자인 실습 등이 중심이 된다. 이 분야의 연구는 과거에는 많지 않았으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복구성학의 체반요소에 따른 디자인 효과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관련 의복구성분야 연구의 하위주제로 구성요소와 디자인의 관계, 체형과 디자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험, 구체적인 스타일, 입체재단에 의한 디자인 실습 및 실물제작, 디자인의 미적 시각적 효과와 의복구성상의 여러 가지 요소와의 관계 평가 등으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5개의 하위주제중 구성요소와 디자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3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입체재단에 의한 디자인 실습 및 실물제작 등의 연구가 23.5%, 구체적인 스타일연구, 디자인의 미적·시각적 효과와 의복구성상의 여러 가지 요소와의 관계 평가의 연구가 각각 17.6%, 체형과 디자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험이 5.9%의 순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각 하위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성요소와 디자인의 관계에서는 플레어 스커트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소재의 선택, 착의방법, 제작방법에 따라 착의시 시각적인 디자인효과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폭이 넓은 스커트에 관한 연구들로 소재와 플레어의 관계, 플레어양에 따른 형태변화, 구성방법에 따른 드레이프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었다. 입체재단에 의한 디자인 실습 및 실물제작 등의 연구에서는 복식사에서 근대복식의 Day Dress, Afternoon Dress 등을 복식사 자료에 입각하여 실물

을 재현해 보는 연구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스타일연구의 하위주제에서는 Watteau Pleats, Empire Line, 경찰모자의 형태개발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디자인의 미적·시각적 효과와 의복구성상의 여러 가지 요소와의 관계 평가의 연구에서는 러플, 테일러드자켓 등의 디자인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체형과 디자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험의 연구내용은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의 내용이었다.

체형연구의 하위주제는 채위치수비교 및 상관관계, 체형분류, 연령별 체형연구, 인체계측, 체형분석, 기타 등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경향을 살펴 보았다. 6개의 하위주제 중 체형분석 연구가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체형분류는 22.9%, 연령별 체형연구 11.0%, 인체계측 9.3%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복은 인간의 신체에 적합하고 심리적으로 만족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합성 높은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착의의 기체가 되는 인체의 체형에 관하여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복의 패턴이 설계되어야 한다.

과거의 한국인의 체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복이 제작되어 신체 적합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한국인의 국민체위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절감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 연구소, 산업계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인체측정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1971~1975년에는 기성복의 대량생산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기성복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인체에 적합한 의복설계를 위해 신체 각 부위의 상세한 치수파악과 함께 체형에 대한 활용 가능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서 발표되기 시작한 체형분석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전체 논문(118편)의 77.8%가 발표되었다.

기성복 제작시 의복생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정확한 인체계측에 의한 체형분류는 필수적이다.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특성 파악이 중요시되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은 인체계측치의 상관성이 적고 의복설계의 기본원형이 다르게 제작되므로 나누어 연구되어지고 있다.

&lt;표 5&gt; 의복구성학연구의 하위주제별 분포

연구주제	주제의 하위그룹	N	%	연구주제	주제의 하위그룹	N	%
디자인 관련 의복구성	구성요소와 디자인의 관계	7	35.3	의류치수	치수실태조사	7	20.6
	체형과 디자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험	1	5.9		치수설정을 위한 체형연구	12	35.3
	구체적인 스타일	4	17.6		등급법을 위한 치수분포분석	4	11.8
	입체재단에 의한 디자인 실습·실물제작	4	23.5		기성복패턴을 위한 치수체계	11	32.3
	디자인의 미적·시각적 효과와 의복구성상의 여러 가지 요소와의 관계 평가	3	17.6		계	34	100
	계	19	100		의복의 맞음새	동작시에 체표면 변화	27
체형	체위치수비교 및 상관관계	6	5.1	착의실험에 의한 기능성 연구		20	42.6
	체형분류	27	22.9	계		47	100
	연령별 체형연구	13	11.0	특수복 및 기능복	특수체형을 위한 의복	8	29.6
	인체계측	11	9.3		특수기능복	4	14.8
	체형분석	55	46.6		특수기능복을 위한 의류품목	15	55.6
	기 타	6	5.1		계	27	100
	계	118	100	봉제	접착심지	15	36.6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원형설계연구	15	17.0		심퍼커밍	6	14.6
	입체재단법연구	1	1.1		소재의 물리적 성질과 봉제와의 관계	6	14.6
	의복의 여유량	6	6.7		패턴과 봉제와의 관계	3	7.3
	한복패턴	10	11.1		봉제의 능률화와 봉제조건과의 관계	7	17.1
	응용패턴	7	8.0		부자재의 가용성	4	9.8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제도	28	31.1		계	41	100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	13	14.4		기타	의생활실태 및 착용태도	4
	동작과 패턴과의 관계	5	5.6	CAD 관련도구		11	39.3
	소재와 패턴과의 관계	3	3.3	기 타		13	46.4
	계	88	100	계		28	100

체형의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연구부위는 전신으로 63.8%로 나타났으며, 상반신에 대한 연구가 20.5%, 인체 중 근육 및 지방이 많이 분포되

어 있는 곳으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위인 하반신에 대한 연구가 10.3%로 연구되어지고 있었다. 체형분류 연구의 대부분이 수직크기를 나타내는 높



이, 길이항복과 수평크기를 나타내는 들레, 두께, 너비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인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한 전후 또는 좌우의 두께항복과 체표각도항목 등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복잡한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별 체형연구는 각 연령대마다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구성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체형변인을 고려한 기본원형의 제작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20대 여성들을 위주로 연구되어지던 것이 노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과 생활의 합리화 등으로 인하여 비만체형이 늘어나면서 비만체형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외에 지역, 인종, 사회환경에 따른 체형의 비교 연구,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연구, 인체의 체형정보를 합리적으로 재현한 인대제작에 관한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체형을 분류하고 이것을 기초로 유형별 인대를 제작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의 하위주제는 원형설계연구, 입체재단법연구, 의복의 여유량, 한복패턴, 응용패턴,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제도,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 동작과 패턴과의 관계, 소재와 패턴과의 관계 등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경향을 살펴 보았다. 9개의 하위주제 중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제도법 연구가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원형설계연구 17.0%,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 14.4%, 한복패턴 11.1%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CAD/CAM 시스템은 상당한 고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투자였으며 '90년대에 들면서 시스템 가격이 현실화되고 기능은 향상되어 중소기업에까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sup>11)</sup>. 하지만 이렇게 도입한 CAD/CAM 설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문인력의 부족현상 등으로 시스템이 가진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의류업계의 현실이다<sup>12)</sup>. 대학교육이 지닌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의류학분야 학과의 교육이 점점 의류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실제적인 교육으로 그 방향이 개선되고 있다<sup>13)</sup>. 종래의 의복구성학은 의복을 만드는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기성복이 일반화되고 작업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있는 현재,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류산업체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어패럴 CAD시스템 도입이 본격화하기에 이르렀고 CAD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sup>14)</sup> 있으므로 의복구성학의 연구 영역 중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제도법의 연구가 활발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제도법의 연구는 각 원형별 패턴 자동제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 CAD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연구 및 CAD 시스템을 이용한 한복패턴의 자동제도법 연구 등이 있었으며 주로 199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원형설계연구는 17.0%로 나타났으며 연구항목은 길원형, 스킷원형, 마지원형의 기본원형연구가 있으며 소매원형연구의 경우 1-2편을 제외하고 원형설계의 하위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매는 동작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원형설계분야보다는 착의평가 및 기능성의 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 부위별 원형연구 중에서 대상연령은 아동기, 중·고등학생, 청년기, 노년기 등의 각 연령별로 기본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청년기의 연구가 많은 편이며 여성복의 경우 각 연령별 및 부위별로 기본적인 원형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11) Bobbin저널, 봉제기술 첨단보고 CAD/CAM이 보인다, 1998, pp.118-119.

12) 이정순, 한경화, 의복구성학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의류산업현장의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 패턴제작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6호, 1999, pp.116-128.

1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교육기관실태조사, 1995, pp.5-30.

14) 김수현, 이송자, 국내의류학분야의 학과의 어패럴 CAD교육현황,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제1권 제1호, 1999, pp.26-33.

15) 최영미, 신체측실지수에 따른 20대 남성의 조끼 pattern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제19권 제6호, 1995, pp.1008-1016.

1995년에 남성의 조기 패턴에 관한 연구<sup>15)</sup>가 보고된 이후에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의복구성학의 연구자가 대부분 여성이므로 여성복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과 연구대상 선정시 편리한 점,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주로 여성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복 또한 체형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별로 기본원형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보다 착용감이 뛰어난 의복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의복구성학 교과내용도 여성복만을 교육하기보다는 더욱 전문화·세분화 되어가는 실정에서 남성복에 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남성복 정장의 기성복화 경향은 1989년의 47.1%에 비하여 1994년에는 71.7%로 급신강하였으며 주분양복은 감소하는 추세이다<sup>16)</sup>. 이와 같이 남성복 역시 대량생산에 의한 기성복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남성복의 패턴연구는 시급한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14.4%로 체형을 고려한 원형연구와 비만체형을 위한 원형연구 등이 있었다. 패턴제작시 인체구조와 패턴을 동시에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이 충족된 패턴을 설계하는 것이 최상의 과제라고 한다면 인체와 의복을 각각 분리하여 연구하기 보다는 인체와 패턴을 연결하여 연구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의 체형은 대단히 다양하므로 기본체형 뿐만 아니라 비만체형을 대상으로 한 패턴연구 또한 의의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직은 활발하지는 않으나 1990년 이후부터 주로 연구되기 시작한 통합과제로서 동작과 패턴과의 관계, 소재와 패턴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는 점은 연구의 통합화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의류치수연구의 하위주제는 치수실태조사, 치수설정을 위한 체형연구, 등급법을 위한 치수분포분석, 그리고 기성복 패턴을 위한 치수체계로 나누어서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는데 4개의 주제 중 치수설정을

위한 체형연구는 23.5%, 기성복 패턴을 위한 치수체계 연구는 32.4%로 나타났으며 치수실태조사는 20.6%, 등급법을 위한 치수분포분석은 11.8%로 나타났다.

치수설정을 위한 체형연구는 각 연령별 의복치수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및 연령별 신체특징에 따른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다. 그리고 기성복 패턴을 위한 치수체계연구는 성인여자 기성복의 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남성복의 사이즈 스팩 연구 및 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치수규격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치수실태조사는 여자 기성복의 치수실태와 통신판매 의류의 치수실태조사, 한복 치수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각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다양한 체형을 수용할 수 있는 의복의 치수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의복을 생산하고 있다. 이 치수규격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치수규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한 의복을 구매하고자 할 때 정확한 치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생산자의 입장에서서는 부적합한 치수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재고 누적 및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적 집단에 대한 신체치수의 크기 및 분포 등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기성복을 선택할 때 의복을 직접 착용하여 맞춤재를 확인하기 전에 의류의 호칭을 통해서 기성복 치수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민동원의 기성복 치수 실태에 관한 연구<sup>17)</sup>에서 2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체형의 다양성에 비하여 기성복의 치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길이와 둘레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체형의 다양성에 비하여 기성복의 치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길이와 둘레 항목이 모두 잘 맞는 치수의 의복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복구매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치수와 맞춤새로서 통신판매란 무점포 소매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의류통신판매는 1989년부터 시작되어 양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맞춤새에 관련된 위험을 느끼게 된다. 현재 통신판매의류의 경우 치수의 다양성과

16) 석은영, 김혜경, 남성복 바지원형의 자동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제1호, 1996, pp.54-65.

17) 민동원,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8) 박경화, 천종숙, 통신판매의류의 치수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제1호, 1996, pp.43-53.

정확성에 대한 검토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sup>18)</sup>.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4차례에 걸쳐 국민표준체위를 조사하여 인체측량자료가 산업제품의 규격화에 이용되도록 하였다<sup>19)</sup>. 그러나 아직은 의류업계의 현실에서 의류치수의 표준화 작업은 요원한 속제로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류산업도 세계화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이라는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류제품의 사이즈 체계의 국제화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므로 의복의 치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기대된다.

의복의 맞춤새에 관한 연구에 하위주제는 동작시 체표면의 변화, 착의실험에 의한 기능성연구로 나누어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결과, 두 하위주제가 각각 57.4%(27편), 42.6%(20편)으로 거의 비슷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의복에서 심미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동적 자세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의복의 기능성은 인체동작의 효율성, 작업 수행능력 및 작업 생산성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의복의 기능성의 문제는 인간공학이라는 과학적인 새로운 분야가 대두되기까지는 개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직감이나 경험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복인간공학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면서 노동의학, 심리학,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복과 착용자와의 관계를 합리화시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동작시 체표면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체표변화의 요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동작의 부위별 치수산출방안으로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각 부위의 체표변화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수복 및 기능복에 관한 연구의 하위주제는 특수체형을 위한 의복, 특수기능복, 특수기능복을 위한 의류품목 등으로 나누어서 연구경향을 살펴본 것은 특수기능을 위한 의류품목에 관한 연구가 55.6%, 특수체형을 위한 의복 29.6%, 특수기능복에 관한 연

구가 14.8%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위주제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기능을 위한 의류품목에서는 브래지어에 관한 연구가 8편으로 전체(15편)의 반이상을 차지하였고 구두 및 발에 관한 연구가 3편, 모자에 관한 연구가 2편, 그외에 스타킹과 파운데이션 의복에 관한 연구 등이 1편씩 있었다. 또한 특수체형을 위한 의복연구에서는 임신복, 환자복과 장애인의 의복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특수기능복에서는 작업복, 군복, 및 농약방제복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봉제의 하위주제는 점착심지, 심 퍼커링, 소재의 물리적 성질과 봉제와의 관계, 패턴과 봉제와의 관계, 봉제의 능률화와 봉제조건과의 관계, 부자재의 가봉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6개의 하위주제 중 점착심지에 관한 연구는 36.6%, 봉제의 능률화와 봉제조건과의 관계는 17.1%, 그리고 심 퍼커링, 소재의 물리적 성질과 봉제와의 관계는 각각 14.6%, 부자재의 가봉성 연구는 9.8%, 패턴과 봉제와의 관계 연구는 7.3%로 나타났다.

점착심지의 기능은 옷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외관 특성에 대단히 중요한 특성으로 걸감의 강도와 탄성을 보완해 주며 실루엣과 형태안정성을 부여한다. 고품질의 의복생산을 위하여 의복소재의 선정, 봉제 공정설계 및 관리 등을 적절히 하기 위하여 선정된 걸감과 점착심을 점착했을 때 필요한 소재의 성질에 관한 자료로부터 봉제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의복의 품질향상과 봉제공정의 자동화 및 간소화의 관점에서 점착심지의 점착과 이로 인한 의복의 변형이 봉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점착심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바람직한 경향으로 생각된다. 점착심지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점착심지의 점착에 의한 물성변화 및 점착심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소재는 모직물이나 부직포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봉제라는 공정이 봉사와 직물과 바늘이 계속되는 마찰로 인하여 피로를 받는 공정이기 때문에 봉제시 바늘의 원단 관통에 의한 문제는 재봉기의 고속화,

19) 임영자, 이형숙, 국내외의 여성복 사이즈체계 비교 연구-20대 여성의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의의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3권 제3호, 1999, pp.391-401.

합성섬유 원단 및 봉사의 보급, 새로운 원단 구조 및 가공기술의 개발 등으로 봉제공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봉제기술의 정밀화 측면을 고려할 때 봉제의 능률화를 유발할 수 있는 최적의 봉제조건을 선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복의 품질 평가는 일반적으로 외관, 실용 내구성, 형태 안정성 등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데 외관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심 퍼커링이 생기게 되면 봉제상의 외관 및 형태는 변형되어 의복의 품질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심 퍼커링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의복의 품질은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류상품에 대한 소비성향은 점점 더 다양하고 개성화 되면서 우수한 고품질을 요구하게 되고 특히 최근 가벼운 직물 및 특이한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심 퍼커 봉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sup>20)</sup>. 더욱 심 퍼커 및 봉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재의 물리적 성질과 봉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선결되어야 하는 연구분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다양한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의복패턴의 구성선은 직물위에서 울 방향을 기준으로 재단 각도를 지니는 선으로 바뀌게 되며 재단상에서 주어지는 봉합선에서 부합되는 봉합강도는 의복의 동적 기능성을 고려할 때 패턴과 봉제와의 관계연구는 의의있는 연구주제로 생각되나 아직은 미진하였다.

기타의 연구내용은 의생활 실태 및 착용태도, CAD관련도구, 기타의 내용으로 분류하였고 중요 연구경향은 CAD관련도구 39.3%, 의생활 실태 및 착용태도는 14.3%, 기타 46.4%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위주제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CAD관련도구에서는 어패럴 CAD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8편)가 주류를 이루어 생산공정자동화, 대량주문생산, QR시스템 등에서 어패럴캐드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의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의생활 실태 등에서는 연령별, 의복아이템별, 기성복 치수체계 등에 관한 착용태도나 착용실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패턴 연구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외에 의복구성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용으로 의복제작 용어 및 측정기준에 관한 연구(2편), 패턴작업공정에 관한 연구(2편), 인대연구(1편), 의복구성교육의 환경변화(1편), 계측기개발(1편)과 인체형상자료의 수리제산에 관한 방법(3편) 등이 드물게 연구되고 있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의복구성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구성학 연구의 현상을 파악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과제의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대한인간공학회지의 창간호부터 1999년 12월호까지의 논문 중 의복구성학 관련논문 402편을 발췌하여 디자인관련 의복구성분야, 체형,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의류치수, 의복의 맞춤새, 특수복·기능복, 봉제, 기타의 8개의 연구주제로 분류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류학 전체논문 중 의복구성학관련 논문의 학회지별 분포경향은 대한가정학회지가 22.9%로 의복구성학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의류학회지는 17.3%, 복식문화연구 12.2%, 복식 6.2%로 나타났다.
2. 연구주제별 분포경향은 체형 29.4%,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21.9%, 의복의 맞춤새 11.7%, 봉제 10.2%, 의류치수 8.5%, 기타 7%, 특수복 및 기능복 연구 6.7%, 디자인관련 의복구성학 연구가 4.7%로 의복구성학 연구주제 중 체형연구와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가 가장 활발한 연구경향을 나타내었다.
3. 의복구성학의 하위주제별 연구경향은 디자인관련 의복구성연구에서는 구성요소와 디자인의 관계 연구가 (35.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실물제작에 의한 패턴연구(23.5%)도

20) 윤태원, 김선경, 강태진, 양모직물의 형태안정성이 시입퍼커에 미치는 영향, 한국섬유공학회지, 제33권 제2호, 1996, pp.166-175.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체형연구는 체형분석연구(46.6%), 체형분류(22.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적합성이 높은 의복제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체형 특성의 파악 및 체형분류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체형분류 연구의 대부분이 수직과 수평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복잡한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였다.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는 컴퓨터 패턴제도법 연구(31.1%), 원형설계(17%),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14.4%) 등의 연구가 활발한 경향으로 이것은 의류산업의 현실반영이라는 측면에서 CAD에 의한 패턴제도법의 연구는 괄목할만 하였다. 원형설계는 대부분 여성복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남성복 등에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원형 연구 분야에서 연구주체간의 통합적 연구로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 소재와 패턴과의 관계, 동작과 패턴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류치수연구에서는 기성복 패턴을 위한 치수체계(32.4%)에 대한 연구가 남성복 및 여성복·한복 등의 기성복 발전으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의복의 맞춤새연구는 동작시 체표면의 변화, 착의 실험에 의한 기능성 연구의 뚜렷한 두 방향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었으며, 봉제는 접착심지연구(36.6%), 봉제능률화 및 봉제조건(17.1%), 심퍼커링(14.6%), 소재와 봉제관련(14.6%) 등의 순서로 연구되고 있었다.

특수복 및 기능복 분야는 특수기능의 품목 연구(55.6%)가 중심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브레지어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고 구두 및 신발, 모자 등의 품목과 임신복, 환자복, 장애인 의복, 작업복, 군복, 농약방제복 등 기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 참고문헌

- Bobbin저널 (1998). 봉제기술 첨단보고 CAD/CAM이 보인다.
-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1977). 의생활. *대한가정학회* 권 신광출판사.
-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Ⅱ (1984). 의류학. *대학가정학회* 신광출판사.
-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1990). 의류학. *대학가정학회* 교문사.
- 김수현, 이송자 (1999). 국내외류학분야의 학과의 어패럴 CAD 교육현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권 제1호.
- 김정선 (1963). 우주복에 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제4권.
- 김효숙 (1991). 의복구성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과 재조명.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14.
-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2000). 한국의류학의 연구경향 분석 : 1991~1999. *복식문화연구* 제8권 제6호.
- 민동원 (1986).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박경화, 천중숙 (1996). 통신판매의류의 치수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제1호.
- 박혜숙, 최경미, 조영아, 공혜정 (1999). *피복구성학-이론편*. 교학연구사.
- 서정권, 최영엽 (1986). 봉제시 바늘의 온도가 가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 *한국섬유공학학회지* 제23권 제5호.
- 석은영, 김혜경 (1996). 남성복 바지원형의 자동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제1호.
- 윤태원, 김선경, 강대진 (1996). 양모직물의 형태안정성이 시임퍼커에 미치는 영향. *한국섬유공학학회지* 제33권 제2호.
- 이상도, 정중희, 김길배 (1983). 인체계측치의 주성분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학회지* 제2권 제1호.
- 이정순, 한건희 (1999). 의복구성학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의류산업현장의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 패턴제작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6호.
- 임영자, 이형숙 (1999). 국내외의 여성복 사이즈체계 비교 연구 - 20대 여성의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의류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제23권 제3호.
- 정찬진, 박선정, 황선진 (1990). 한국의류학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제15권 제1호.
- 최영미 (1995). 신체충실치수에 따른 20대 남성의 조끼 pattern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제6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5). 한국패션교육기관실태조사.